"광주 SRF시설 '악취·안전·재정' 총체적 위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임미란 "SRF 문제, 광주 행정 시험대" 市 "중재 대응 합리적 결과 도출 총력" 소각장 건립도 장기화…대안 마련 시급

광주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 RF)이 악취 문제, 안전사고, 재정 분쟁, 행정 불 신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2)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SRF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시민의 삶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라며 "광주시는 악취·안전·재정 문제를 동시에 직시하고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 모·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천 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 음에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 지 않았다"며 "주민 피해 상황이 명확한 데도 주 민 건강 영향 조사나 역학조사 등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악취 민원은 1천 32건으로 지난해 (56건) 보다 18배나 급증했다.

임 의원은 "창문조차 열 수 없다는 주민의 절 규가 행정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즉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첫째 날인 20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각적인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 억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 설비를 약액세정 탑(화학 양품 중화식 설비)으로 교체한 이후 악 취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광주시는 해당 변경 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과 환경부 협의 및 승 인 절차가 적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광주시는 교체 승인 근 거와 원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진단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해야 한 다"고촉구했다.

그는 또 "하루 16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S RF 시설이 현재 24시간 전면 가동되고 있다"며 "이는 시설 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가 동이며 행정이 이를 묵인한 것은 관리 부실"이 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2년 만에 7 8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불어난 사안에 대해 서도 "행정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며 "중재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과 계약 구조 재검토, 행 정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제공〉

안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SRF 시설에서 최근 3년 간 화상, 추락, 골절 등 중대 사고가 잇따랐다"며 "이는 구조적 관리 부 실이자 광주시의 감독 소홀을 의미한다"고 지적

임 의원은 "SRF 문제는 환경·안전·행정 전반 의 복합 사안"이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대 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 임 의원은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소각 장이 없는 광역도시로 이는 정책 실패이자 환경 위기 대응의 구조적 공백"이라며 "소각장 건립이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광역 연계 처리, 민간 위 탁등대안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운 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공론화하고 중재판정부 권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중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전 문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해 시설 성능 미달로 인한 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 다"고밝혔다.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도 정 국장은 "2030년 법 정 시한 내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되 환 경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해 갈등 해소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확정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 내년 착공 목포 용해동에 450억 들여 2028년 준공

수묵비엔날레 전용 상설 전시장인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 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에 착공한 다. 〈조감도〉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남 서부권 의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미 술 전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 진한 핵심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그동안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 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지난 8월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했으며 사업 필요성과 수요, 타당성 등을 설명한 결과, 재심사 없이 한 번에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

아트센터는 목포 용해동 일원에 총사업비 450 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7천11㎡(지하 1층-지 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상설 미디어극장, 디지털아트전시 관, 교육체험실, 창작공간 등이 조성된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



편, 국내외 수묵 예술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기 능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비엔날레 외에도 아트페어, 수묵 예술아카데미, 미디어 파사드 공연, 수묵 스튜디 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서부권의 오랜 숙원 이었던 아트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균 형 발전의 대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2025년 현재 행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누적 관 람객 35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 제로 20개 국가 83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해 남·진도·목포 등 3개 전시관에서 수묵의 전통성 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회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재정기자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한가위 EVENT

REAL PRO MAN1 최대 250만원 혜택!











민주 호남발전특위, 광주상의와 현안 논의

이병훈 "지역기업 목소리 정책 반영"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광주상 공회의소와 20일 상의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간 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 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호남발전특 위 위원,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주요 현안은 ▲광 주 군공항 이전사업 정부 재정 추진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국비 비율 상향 ▲호남선 KTX 증편 및 차량 배정 개선 ▲한국 에너지공대 출연금 거버넌스 개선 ▲지역 특성 고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광주-대구 달 빛철도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국립현대미술 관 광주 유치 ▲국회광주도서관 유치 ▲대한민 국역사박물관 광주관 유치 등이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는 해결 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광 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기 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 해 정부가 직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지역 주요 현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 부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과 기관의 목소리 를 바탕으로 지역의 당면 과제들이 실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기간: 10/1~10/31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파나소닉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